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던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도 늘어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사고 분석, 관계기관 협력, 안전계획 수립 등 선제적 관리 체계를 포함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해 학부모와 청소년의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동장치 부착 유도와 교육·홍보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정 자전거의 규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한다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